

서울공고 인쇄과 스승 제자 사이 4명 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서 함께 근무

많고 많은 인연들이 우연을 가장으로 이루어진다. 일련의 수학자들은 이러한 우연이 일어날 확률의 수를 즐겨 계산하곤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그 확률수가 두 자리 수 이상일 확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한 학교에 동문 4명이 근무를 한다. 사범학교,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긴다면 모두 한 학과에서 근무한다고 치자. 아주 후한 점수를 취서 100을 기준으로 50을 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교사들의 정년이 61세인 점을 더하고 떨어진 확률수에 7년 이상 계속해서 한 학교에 근무하기 어렵다는 경우의 수를 포함시킨다면 확률 수는 더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교사들의 발령이 교육부에서 임의로 내린다는 점이 빠져선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명의 나이 차이가 많게는 26살까지 난다는 점과 그것도 모자란다면 사제관계로 3대를 이어오고 있다는 경우의 수까지 더 해보자. 계산이 복잡하다면 결과는 천천히 확인해도 된다.

이 기막힌 우연이 영등포구 양평동

에 위치한 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승희(57세) · 신광철(46세) · 박병권(37세) · 조우성(32세) 선생님. 우연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서울공고 인쇄과 출신들이다.

우연의 조짐은 1974년에 시작됐는데 한 교사가 신 교사의 담임을 맡은 것이었다. 이후 한 교사는 서울북공업고등학교로 전임을 갔고, 신교사가 모교인 서울공고로 전임을 왔다. 84년 신 교사는 박 교사를 가르쳤고, 몇 년 뒤엔 조 교사를 또 가르쳤다.

이들이 모여있는 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는 한 교사가 95년에 가장 먼저 부임했다. 한 교사에 이어 조 교사(96년), 박 교사(97년)가 각각 한강공고에 왔고, 2000년 신 교사가 전임을 오면서 사제지간 3대가 한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한 교사가 기억하는 신 교사는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이다. 표현을 꺼려했지만 지금 신교사의 성격은 그때와는 사뭇 달라 놀라기도 한다는 귀뜸을 했다.

신 교사에게 한 선생님은 무척 재밌

고,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 기억된다. 남학생들이 좋아 할 만한 이야기를 양념으로 잘 했고, 웅변으로 다듬어진 한 교사의 강의는 그야말로 열광이었다.

당시 한 교사에게서 배우던 과목이 불록판 인쇄였다. 한 교사의 배가 과목명처럼 불록해서 붙여진 별명이 “불록이”였는데 20년이 넘어서 만난 은사의 배는 지금도 불록하다.

신 교사가 기억하는 박 교사는 그야말로 모범생이었다. 마침 박 교사의 아버지가 교사여서 신 교사는 박 교사에게 교사가 되라고 권유하곤 했는데 이후 부경대학교로 진학한 박 교사는 신 교사의 바람대로 교사가 되어 나타났다. 박 교사에게 신 교사는 말이 없고, 엄한 스승이었다. 하지만 동료가 된 지금은 말도 잘 하고 농담도 잘하는 그런 분으로 변해 있다.

신구대를 졸업하고 한강공고에 초임 발령을 받은 조 교사는 신 교사에 대한 기억을 강의실이 아닌 매점에서 찾아냈다. 신 교사가 1년간 학교 매점을 책임지고 운영한 경력 때문인데 박 교사처럼 조용하고 엄한 스승으로 학창 시절 은사를 기억했다.

신 교사는 조 교사가 학창 시절 많고 많은 제자 중에 눈에 떨 만큼 말을 피우진 않는 조용한 학생으로 제자를 기억했다.

박 교사와 조 교사는 사제간이 아닌 선후배지간으로 박 교사가 4년을 먼저 배워서 학교 다닐 때 이들의 만남은 없었다. 한강공고에는 조 교사가 먼저 부임했지만 교사 생활을 먼저 시작한 박 교사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고, 옆자리 동료인 박 교사는 조 교사의 자문에 성실히 응했다.

스승의 날이면 이들의 관계는 복잡해진다. 사제지간이지만 한참 후배인 제자들도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승의 반열에 올라있고, 어엿한 동료 관계에 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동료 교사들의 시샘(?) 때문에 함부로 은사에 대한 감사 표시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지금도 은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곤 한다. 교사가 되기 전부터 담임 선생님이던 신 교사를 찾아오던 박교사의 정성은 동료가 된 지금도 여전하고, 조 교사는 담임을 못 맡은 신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조 교사를 위해 마련해 준 정성스런 선물을 음성적(?)으로 전해 주기도 했다.

스승의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승의 날을 즈음해서 나누는 식사 한끼는 사제지간에 못다 나누는 정을 나누는 시간이다.

3대가 한 직장에 근무하다 보니 만감이 교차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정년이 3년 남짓 남은 한 교사는 제자가 동료로 오면서 부쩍 몸가짐을 신경 쓰고 있다. 동료라면 괜찮겠지만 제



◆ 서울공고 인쇄과 출신 4명의 교사가 사제지간 3대를 이어가며 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병권, 조우성, 한승희, 신광철 교사.

자들에게 반듯하고 올곧은 스승으로 남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한 교사에게서 한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박 교사와 조 교사에게 "박 선생, 조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신 교사에게 입버릇처럼 "광철이! 광철이!" 하는 것이다. 이는 스승의 말이라면 곧이곧대로 믿는 사랑스런 제자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란단다.

신 교사에게 있어 한 교사는 감히 넘어서 볼 수 없는 영원한 스승이다. 신 교사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교사들도 회식 때면 한 교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신 교사는 은사인 한 교사 앞에서 술기운이라도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스승을 동료로 둔 교사의 불편함은 교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 그대로 나타난다. 여차하면 "한 교사는 제자를 어떻게 가르쳐서 신 교사가 저러냐"라며 신 교사가 아닌 한 교사에게 핀잔을 날린다. 그럴 때면 신 교사는 함부로 의견을 개진하기가 난처하기만 하다.

하지만 제자가 동료로 있다보니 은

행 가기 귀찮은 시간이나 급할 때는 제자들이 기꺼이 선생님의 은행이 되어 준다. 한 교사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신 교사지만 박 교사에게 있어서 신 교사 역시 영원한 스승이다.

박교사는 수업 시간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옛날 신 교사가 자신을 가르치던 때를 기억하곤 한다. 업무 도움을 받을 때나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 신 교사나 조 교사를 찾곤 한다. 조 교사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기막힌 우연이 계속 될 가능성의 여지는 한 교사의 정년 퇴임이나 올해로 7년째로 근무연한이 다 찬 조 교사의 향후 발령 여부에 달려있다.

이제 못다 마친 계산을 마쳐보자. 고장난 계산기가 아니라면 확률 수는 한자리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다.

확률 수 '0'을 바라보는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그리고 동료로 인연을 맺은 3대에 걸친 서울공고 인쇄과 출신들의 기막힌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용우 기자〉